

촌(村) 티 나는 문화에 발 담그기

Immersing into the village



박헌춘 | Park, Heon-choon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전문관

약력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녹색농촌체험마을 부수리 사무장 역임
- 국토디자인 시범사업 실무계획가 역임
- 제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대상 수상
- 도시·건축 예묘지업연구소 연구원

종종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해 보면 '도시건축'은 뭔가 '매력'과 '꺼리'가 있어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반해, '농촌건축'은 '그게 뭐예요?'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왜 이렇듯 농촌지역이 건축전문가들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었을까? 단순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농촌=농업'이라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촌(村)은 결코 업(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도 건축전문가도 '村=業'으로 여겼고 때로는 '業'村의 공식을 적용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촌(村)에 무관심 할 수는 없다. 건축전문가들은 촌(村)이란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사회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제 그 때가 왔다. 바로 지금!!!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정책국에 부여했던 선임국 지위를 농어촌정책국으로 이전시켰다. 이것은 촌(村) 중심의 농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 농정기조의 획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사를 짓는 곳이 농촌이 아니라, 농사도 짓는 곳이 농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첫 걸음을 떼었다. 도시든 농촌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건축과의 관계를 결코 도외시 하고 살 수는 없다.

얼마 전 건축설계를 가르치는 교수로부터 도시과는 공간을 다루고, 조경과는 수목을 다루고, 건축과는 공간과 환경과 사람을 다룬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능력을 왜 스스로의 틀 속에 가둬두고 사회와는 나누지 않는가.

건축전문가들의 무관심 속에 농촌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마을단위의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문제는 농어촌의 마을단위 사업에 건축전문가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농어촌 거주자의 대부분이 건축전문가를 단지 도면을 그리거나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 인식하

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공간에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건축전문가 풀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의 마을단위 사업에 건축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광역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여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에서 중복 지원해 오던 다양한 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주거환경개선, 산촌생태마을, 거점면개발 등)들을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하로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되는 120개 시·군, 시군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외의 군은 제외)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 도시활력증진지역(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과 성장촉진지역(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은 국토해양부,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은 행정안전부로 나누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농어촌지역이라는 점과 농어촌의 미래와 가치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한다면 건축전문가가 농어촌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만 농어촌 공간에 뛰어들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농어촌 공간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마음, 특히 '사명감'이란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에 건축전문가들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길 희망하고 기대해 본다. ■